

2018 년 1 월 13 일 "(신년예배) 예수님 사랑에 길들여지기"(요 13:34-35)

<도입>

요 13:35 올해 표어 말씀. 이것이 어떻게 삶에서 이루어질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고 법을 안 어기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기준에 딸린 문제입니다. 관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가, 즉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1] 영적 훈련의 필요성

사람의 존재를 두 차원에서 보면,

- (1) 육체적 - 생명지향적.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잡니다. 본능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 (2) 정신적: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를 추구합니다(사랑 지향적 - 관계 중심적). 종교만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속 프로그램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돌보는 방법(음식 조정, 운동, 마음수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 심겨진 사람의 참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야 한다는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신 삶을 보면 이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기를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나 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참 사람(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과 같이 나도 참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면되니까, 예수님 믿고서도 자신의 조건을 조금 낮게 만드는 데에서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방식의 삶을 배움으로써 그분의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를 애쓰며 '나의 나 됨'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마 11:28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2] 말씀 안에서

나의 나 됨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으며,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시편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성경 본문 시 119:161~68 에 시인의 고백이 드러집니다.

- 161 절 (핍박 받는 가운데) 말씀만 경외합니다(사랑함과 떨림)
- 162 절 (탈취물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 함
- 163 절 (거짓을 미워하며) 율법(말씀)을 사랑
- 164 절 하루 7 번 주를 찬양(하루 종일)
- 165 절 주의 법(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 → 삶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 166 절 (구원을 바라며) 계명(말씀)을 행합니다
- 167 절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따랐음)
- 168 절 (말씀을 지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

또한 169~176 절에는 시인이 간청을 드립니다.

169 절 깨닫게 하소서; 170 절 나를 건지소서; 173 절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5 절 나의 영혼을 살게 하소서(내면 세계가 밝아져서 혼동이나 깜깜한 흑암, 무질서에서 벗어나도록); 176 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런 고백과 간청을 드리는 시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붙들리고 붙들려야 하는 사람. 모든 기도의 간청이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드러져야 한다는 바람이 강렬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말씀을 애절하게 구하게 만들까요?

참 인생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사정이 좀 나아지고 문제가 풀리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그보다 진실된 삶을 살고 싶고, 살아야 할 나의 나 다운 삶에 대해 무력감을 깨닫기 때문에, 무엇보다 참이신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토록 의탁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서적인 나의 나 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다면 시인의 고백과 간청은 내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3] 예수님께 길들이기

길들여짐에 대한 좋은 예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와의 대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여우의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길들이고 싶다면 정해진 시간에 와달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설렘과 행복을 느끼면서 더 깊이 길들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침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저녁의 성경 읽는 시간을 길들인다면 그 시간은 내게 특별하고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길들인 시간마다 말씀 안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듭 만나고, 나 또한 그분께 길들여지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 길들여지기는 이렇게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만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훈련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맺음>

올 한해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특별히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만나기 위한 시간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마음의 조급함에 치이면 예수님 말씀에 길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매일 다가오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과 주님 다우심을 배워 나의 나 됨의 길에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사람(제자)인줄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의 말씀에 길들여질 때 가능합니다. 나는 말씀 생활에 대해 무엇을 결단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2. 예수님께 길들여지면 어떤 변화와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봅시다.